

밸런타인데이·새학기 마케팅... 유통업계, 실적개선 기대감

롯데백 선물상품 할인가에 선봬
아모레퍼시픽 등 4개 뷰티 할인

이마트 14일까지 관련상품 30%
일정금액 초콜릿 구매시 추가할인

신세계백 커버넌트·컨버스 등 브랜드
가방·신발 등 최대 70% 할인 제공

설 대목 특수를 누린 유통업계가 밸런타인데이, 새 학기 등 다음 시즌 마케팅에 돌입했다. 연초에는 전통적으로 시즌 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유통업계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설 특수를 누린 주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이 밸런타인데이 행사와 새 학기 시즌 마케팅을 전개하며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최장기간 이어진 설 연휴 동안 유통업계는 특수를 누렸다. 설 연휴 기간 주요 3사 백화점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28% 이상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의 일평균 매출은 32.7% 증가했으며, 신세계백화점은 27.3%, 롯데백화점은 25% 증가했다.

대형 마트도 명절 특수의 효과를 봤다. 이마트의 일평균 매출은 27%, 홈플러스는 24%, 롯데마트는 25% 증가했



신세계백화점 2025년 포스트설 새학기 기획전 관련 이미지.

/신세계백화점

다. 업계에서는 긴 설 연휴로 인해 집밥 수요가 증가한 데다, 강추위로 아우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통업계의 일평균 매출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유통업계는 설 이후에도 시즌 특수를 지속하기 위해 연초 시즌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 시즌을 겨냥해 다양한 선물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전국 모든 점포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에스티로더 컴퍼니즈, 시세이도 4개 뷰티 그룹사와 함께 뷰티, 주얼리, 패션 액세서리 상품군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한, 파티 및 기념일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디저트, 조명, 파티 테이블, 데코레이션 상품을 선보이며, 밸런타인데이 팝업스토어와 한정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마트 역시 이달 14일까지 밸런타인데이 관련 상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며, 초콜릿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가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새 학기 시즌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2월 6일까지 새 학기 제품 기획전을 열어 르꼬 스포티브, 커버넌트, 컨버스, 내서

널지오그래픽키즈 등 브랜드의 가방, 신발, 의류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처럼 설 연휴를 기점으로 연초 시즌 행사가 연이어 열리면서 유통업계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에는 다양한 시즌 행사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설 대목을 시작으로 밸런타인데이, 새 학기 등의 연초 행사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1분기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에도 주요 백화점들은 호실적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은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81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은 3.6% 증가한 5936억원, 신세계백화점은 7% 증가한 664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년 연초에는 대목이 연달아 이어지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편의점 CU가 주류 픽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BGF리테일

CU 주류 픽업서비스 이용 지난 3년간 3배 급상승

CU가 O4O(Online for Offline)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선보이고 있는 주류 픽업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지난 3년간 3배 상승했다.

CU는 자체 앱인 포켓CU를 통해 앱에서 주문한 상품을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픽업할 수 있는 주류 픽업 서비스를 2021년부터 5년째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지 미리 예약해 맥주, 와인, 위스키, 전통주에 이르기까지 총 2500여가지 주류를 원하는 날짜에 픽업할 수 있어 이용 건수가 매해 늘고 있다.

실제로 주류 픽업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2년 6만여 건에서 지난해 20만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포켓CU 주류 픽업 서비스 CU BAR의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2022년 145.2%, 2023년 190.8%, 2024년 188.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 '요리하다' 팝업 오픈

오는 21일까지 잠실점 보틀병커서
상품 활용 이탈리아 퓨전분식 제공

롯데마트가 이달 21일까지 롯데마트 제티플렉스 잠실점 1층 보틀병커서 매장에서 간편식 자체 브랜드(이하 PB) '요리하다'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 '요리하다 키친&바'는 간편식 PB '요리하다'와 주류 전문 매장 '보틀병커'가 협업해 선보이는 특별 매장이다.

'요리하다 키친&바'에서는 '요리하다' 상품을 활용한 이탈리아 퓨전 분식 요리를 즉석에서 조리해 제공한다. 대표 메뉴로는 ▲고기순대 루꼴라 샐러드 ▲아라비아파 치즈돈가스 ▲들기름 고기 깻잎전 등 총 7가지 요리가 준비됐다.

메뉴 개발에는 식품 PB 전문 상품기획자(MD)가 직접 참여했다. 양식 전문 셰프와 협업해 퓨전 요리를 개발했으며, 보틀병커의 와인 전문 상품기획자



롯데마트 팝업스토어 '요리하다 키친&바' 포스터.

/롯데마트

들이 직접 요리를 맛본 후, 각 메뉴와 잘 어울리는 와인을 직접 선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보틀병커가 운영하는 '테이스팅탭'을 활용하면 다양한 와인을 글라스 단위로 시음할 수 있다. 테이스팅탭은 보틀병커 매장 내에 마련된 셀프 테이스팅 공간으로, 방문객들이 다양한 와인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조성됐다.

/안재선 기자

SSG닷컴 '그레이트 워크' 할인행사

1주일간 매일 특정품목 선정 할인

SSG닷컴이 이달 9일까지 1주일간 매일 특정 품목을 선정해 할인하는 '그레이트 워크'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SSG닷컴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3일에는 제철 과일을 특가로 선보인다. 설향 딸기, 제주산 골드키위, 서귀포 레드향, 칠레산 생블루베리 등을 최대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이어 4일과 5일에는 양념육과 농산물 할인전을 진행한다. 4일에는 '양념 소불고기(800g)'를 1만 3000원대 행사 가격에, '한돈 찜닭(450g)'과 '오삼불고기(400g)'는 각각 40%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한다. 5일에는 고구마 2kg 박스를 5000원대, 국내산 양배추 1통을 2000원대에 선보인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할인전도 진행한다. 허쉬 키세스 아몬드, 킷캣 오리지널, 칼파제르 밀크 초콜릿 등 다양한 초콜릿 상품을 1+1행사와 함께 특가에 제공하며 인기 과자도 7일간 할인한다.

행사 마지막인 8~9일에는 주말 장보기 할인전이 열린다. 특히, 바세린 로션, 크리넥스 티슈, 오타비 칫솔, 깨끗한나라 물티슈 등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1+1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안재선 기자

롯데하이마트, 노트북·IT가전 '빅세일'

롯데하이마트가 새학기를 맞아 2월 한달간 전국 32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노트북·IT가전 아카데미 빅세일(Big Sale)'을 진행한다.

매년 2월은 새학기를 앞두고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등 IT가전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다. 실제로 지난 3년(2022~2024년)간 롯데하이마트의 IT가전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2월은 연중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는 시기

평소보다 약 30% 높게 나타난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에 판매한 '에이수스' 노트북 중 판매량 1위 상품인 '비보북(16형)' 행사상품을 500대 한정으로 온라인 최저가 수준인 59만 9000원에 제공한다. 또한 로지텍 '무소음 블루투스 마우스', '엠프리스 오리지널 무접점 게이밍 키보드', '주연테크 '게이밍 모니터' 등 다양한 IT가전 행사상품도 최대 25% 할인한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 9일까지 전 점포서 '베이비 페어'

유모차 등 유아용품 최대 40% 할인

신세계백화점이 이달 9일까지 전국 13개 전 점포에서 '베이비 페어'를 열고, 프리미엄 유모차 등 유아용품과 신생아 의류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부가부' 전 상품을 5% 할인가에 제공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드래곤플라이'와 '버터플라이' 스트roller 등이 포함됐다.

육아 편집숍 '바베과파'는 입점 브랜드 제품을 5~40% 할인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레드루트 젓병 세정제 또는 세탁세제 정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카시트 브랜드 '싸이베스'도 전 제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속싸개와 배냇저고리 등 신생아 의류 제품군도 브랜드별로 10~40% 할인한다. 특히, 유아복 브랜드 '에프와'는 전 제품을 20% 할인하며 1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토이 바스켓을 증정한다. 유아동 의류 브랜드 '슈슈앤크라'는 인기 품목을 20~40% 할인, '오가닉맘' 역시 배냇저고리·손싸개·내의로 구성된 출산 세트를 30% 할인가에 제공한다.

한편, 강남점에서는 이달 7일부터 네덜란드 아기띠 브랜드 '아티포페' 국내 첫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브랜드 대표 상품인 '자이가 이스트아기띠', '매직 벨트백'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이 마련됐다.

/안재선 기자

세븐일레븐 '프랑스·日 빵 만나요' 글로벌 베이커리 강화

편의점 베이커리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프리미엄 베이커리를 강화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7월 프랑스에서 수입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파스키에' 시리즈(6종)를 필두로 일본 인기 베이커리 브랜드 '도쿄브레드' 6종, 일본 카스테라 전문기업 스위스팩토리의 카스테라, 미니 케이크 등 현재 총 25종의 다양한 글로벌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의 해외 프리미엄 베이커리는 '세븐일레븐에서 파스키에빵 구매 후기', '최화정 빵으로 유명한 파스키에빵', '도쿄브레드 6종 후기', '세븐일레븐 일본간식 추천' 등 숏폼, SNS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세븐일레븐의 해외 프리미엄 베이커리는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대비 3배 이상 신장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매출도 전년 대비 20% 성장하며 세븐일레븐의 효과 카테고리 자리 잡았다.

/신원선 기자